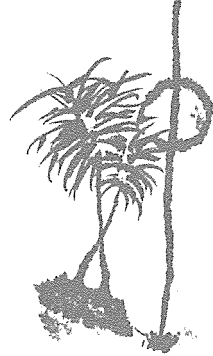


내음의 藝術



孫 哲

“내음으로 승화시킬 줄 아는 예술 창조”

내음이 냄새보다 어감이 좋아 임의롭다. 싱그러운 쉼(향)은 내음이고 퀴퀴한臭(취)는 냄새였으면 싫는데 실체는 “내”가 더 흔히 쓰이고 있다.

영어는 스펠이 대표적 어휘인데 그 자체의 강약 질량에 따라 센트 오도 프레그런스 퍼퓌 아로마 리플론스 등 우리보다 한결 다채롭다. 말그대로 코쟁이어서 스펠에 더 약은 탓인지 모르지만 후각(嗅)은 미각(味)과 같이 화학적 자극을 받는 동물의 개체나 종족 보존에 필요한 보다 원시적(原始的) 감각일 뿐이다.

실험삼아 암 생쥐만을 한 장에 모아 기르면 갓내 피우는 시기가 죄다 불규칙해지는데 수컷을 한놈이라도 섞어주면 정

상으로 돌아온다. 또 새끼 벤 생쥐를 울안에 종(種)이 다른 수컷과 같이 있게 하면 금방 유산해 버린다. 그러나 암컷 후각을 미리 망가뜨려 없애버리면 이런 해피한 현상이 일지 않는다. 아마도 수컷이 갈려 퍼뜨리는 지린내 탓이리라는 추측이다. 그러니까 수컷 오줌에 어떤 화학물질이 암컷 후각을 자극하여 중추신경을 건드려 내분비선에 작용하여 발정이나 유산을 시키게 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생쥐에는 냄새가 곧장 호르몬 기관에 영향을 줄만큼 큰 역할을 한다는 뜻이 된다. 이러한 현상은 허기진 사람이 불고기 내음만으로 군침을 삼키는 정도와는 유가 다르다.

어릴 적 어머니 치마 속 깊숙한 주머니에서 누렇게 물든 약포지에 진 자주빛 윤을 내며 은화하고 시원스런 향내를 은은히 풍기는 귀이개 하나 요량의 사향(麝香) 가루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요즘 같으면 오리지널 샵넬-파이브 쏘냐-오데코롱 등등 멋쟁이들이 풍기고 스치면서 흔들어 대는 향수에 해당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사향은 지금도 명크 오일이란 이름으로 시판되고 있는 모양이다. 이러한 희한한 내음을 발산하는 물질은 페로몬이라 불리우는 6~8개의 탄소를 갖은 지방산(酸)이며 숫 궁노루 향낭(囊)에서 암컷을 꼬시기 위해 분비되는 것이다. 조류(鳥)를 제외할 날버러지 물고기 표유류 등에서 널리 찾아낼 수 있으며 영장류(靈長類)인 원숭이에서는 질(腔)에서 분비되어 수컷을 발정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인간에도 질 분비액 속에 섞여 나오며 배란기 때마다 피크에 이른다. 모를 일은 페로몬에 대해 남성보다 여성 자신들의 코가 더 예민하다는 시험 결과이다. 이러한 재미있는 사실을 나름대로 풀이해 보았다. 이를테면 어느 날 갑자기 질어진 분칠, 진해진 우유주 입술을 어이 놓칠세라 밤이 새도록 여수어야 한다는 플레이 보이들의 초보강좌, 그리고 또 서로 살을 섞는데는 언제라도 아낙이 먼저 발동을 걸면 사나이는 곧장 악셀러레이터를 밟아 뒤통기면서 똑같이 타고 달려야 한다는 신관 성애론(性愛論)이 어찌면 인류 태초부터의 원형(原型)였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격이다. 곧 호모 싸피언스의 종족 보존을 위한 이니씨

어티브는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었으리라는 내 의견이란 뜻이다.

아뭇튼간 사람이 뿜어내는 내음으로서의 페로몬쯤 실상 아무것도 아니다.

먼저 얼굴이나 음성이 각기 다르듯 누구나 저만의 특색있는 체취(體臭)라는 이름의 몸내를 갖고 있다. 이러한 개성적인 냄새의 주역(主役)은 겨드랑과 사타구니에 있는 아포크린 선(腺)에서 나오는 지질(脂)과 당질(糖)이 되겠다. 여기에 조연(助演)격으로 온 몸에 퍼져 있는 피지선(皮脂)과 한선(汗)에서 나오는 소위 비지땀과 물땀이 범벅이 되어 옷 요이불 방안 구석구석에 스며 있으면서 두고두고 뿜어 내는 것이다. 또 살같은 찢찢한 체로 놔두면 그냥 잡균이 성해 부패와 발효를 이르게 서먹한 남이 말기에는 거부할 정도가 된다.

하물며 여성의 음부(陰部)에서는 질액(腔液)까지 합세한데다 자칫 불결하기 쉬운 항문에서의 대장균마저 질균(菌)과 함께 뿜어대면 한 때는 “살아 있는 물질”이라고까지 했을만큼 인간 취(臭)의 사령탑을 이룩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항상 깊은 곳에 간직하고 다녔던 귀한 사향은 품위있는 몸가짐을 위한 슬기가 아녔던가 싶어 무릎이 쳐지는 것이다.

또 다음으로 남성에서는 아무래도 발가락 사이에서 통기치는 고린내가 되겠다. 더군다나 요즘같은 혹더위에 한증막같은 가죽구두 속에서 시달린 나머지의 냄새야말로 일품이 아닐 수 없다.

마지막으로 꽃무늬 브라지어까지도 자랑하고 싶은 듯 연분홍 갑사 원피스에

잠긴 날씬한 아가씨의 어지러운 파마에서 솟꾸치는 탄내 아니면 비듬내에 숨이 막혀 외어서야 했던 사나이란 코가 큰 탓인 나 뿐이기를 바라는 바이다.

아무렴 저절로 생긴 냄새들인데 두려워 하거나 겁먹을 건 눈뿔만큼도 없는 것이다.

못내는 의사 신세를 져야 하는 암내 입내 뿐이라 씻어도 씻어도 코를 찌르는 양키들의 노랜내라 할지라도 오다가다 눈이 맞는 순간 번개처럼 사랑의 묘향

(妙香)으로 둔갑해 버리는 것이 또한 냄새이기 말이다.

갓난 아기가 달콤한 젖내만을 더듬어 살피면서 엄마의 유방을 쉽게 찾아 내뿜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두 손을 묶어봐도 수심억중의 하나인 그-녀-를 밝힐 수 있는 코를 사람은 갖고 있기에 말이다.

실로 사람은 누구나 저만의 냄새를 창조하고 또 어느새 내음으로 승화시킬 줄 아는 진정한 예술인인 것이다.

〈필자 = 전남의대 명예교수〉

건강상식 ●

비브리오 패혈증 예방대책

1. 비브리오 패혈증이란?

○원인균은 *Vibrio Vulnificus*이다.

○이 균은 해안 갯벌에 분포되어 있고 여름철(6~9월)에 번식력이 강하다.

○이 병은 섭취후 16~20시간의 잠복기간을 거쳐 고열, 두통을 일으키는데 이때에 치료하지 않으면 피부에 구진, 발적, 수포, 괴저 등이 생긴다.

○이병은 40대 이후의 남자중 간질환, 당뇨병 등 만성 소모성 질환으로 건강상태가 약한 사람에게 주로 발병한다.

2. 환자발생 현황

발생지역	발생수	사망	입원	발생기간	원 인 식 품
전남·북 충남·서울	21	8	13	'84.6.19 ~ 7.31	피조개, 낙지, 꼬막, 생굴 미더덕등

3. 예방대책

○갯벌에 서식하는 피조개, 낙지, 미더덕, 꼬막, 생굴 등은 반드시 익혀 먹고 날로 먹을 때는 흐르는 수도물에 깨끗이 씻어 먹는다.

○성인병 질환자는 어패류를 날로 먹지 말고, 건강한 사람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폭음, 폭식시에는 주의를 요함.

○도마, 칼, 행주 및 생선을 담는 그릇은 깨끗이 씻거나 살균제로 소독한다.

○비브리오균은 생선의 아가미, 비늘부위 그리고 내장 등에 있으므로 이를 제거한 후 흐르는 물에 3회이상 씻은 후 위생적으로 처리한다.

4. 항후대책

○국립보건원에서 병원균의 분포 항독소(Antitoxin)등의 연구를 추진중임.

○국민 식생활의 제도, 식품점객업소의 지도강화 및 질병의 조기 예보제도를 발전시킬 것 임.